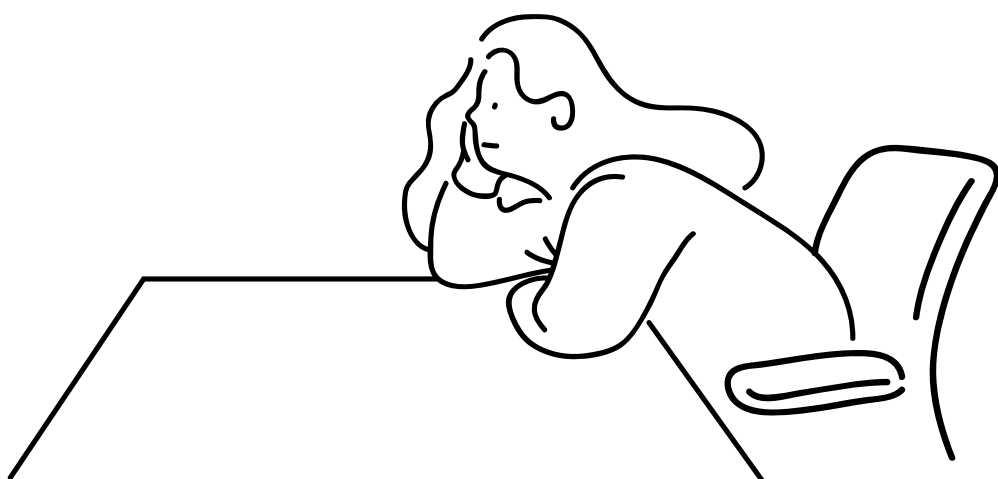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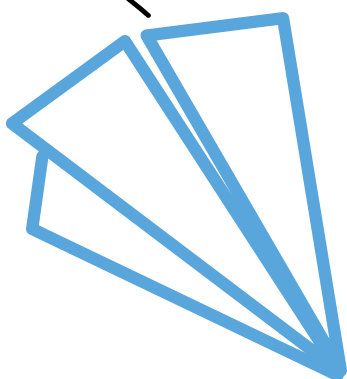


우리들의 이야기

용현초
(3-2)



목차

문어-강예준

씨앗-최지우

풀-이진유

오리 발에 불났다-최승수

겨울-임서운

지진-박은호

반딧불-임이수

귀이개-소지환

별-이서원

아이스크림-이강준

소망의 병-정하온

불길-송아름

날개 달린 눈사람-주세아

무지개다리-송강훈

소낙비-이하린

보이지 않는 힘-한우빈

내입이 도둑-김휘영

생각중이다-박혜울

우리도 그래-김재중

악마의 열매-최석훈

고민고민-우수혜

풀꽃이름숙제-엄지이

나, 반장 투표 뽑았어?-유현우

강아지-원민서

누가 내 케익을 먹었을까?-김예빈

짜증-김지후

문어 강예준

가자 가자가자

바다로가자

조개조각을 주으러가자

바다로가자



그날 밤 문어의

다리조가

가자가자간다

바다로가자

문어를 주으러

바다로가자





정호승 지음
정지에 그림

엄마가 날 낳기 전
나는 무엇이었을까
오월의 나뭇잎에 어리는 햇살이었을까
길가에 핀 한 송이 작은 꽃이었을까
아니면 남해의 어느 섬 절벽위에 둥지든
바다새의 작은 새알이었을까
아마 엄마가 날 낳기 전
나는 엄마의 사랑의 만유이었을 거야
마음 외 중심에 있는
작은 씨앗이었을 거야



옮긴이: 최지우

푸른

김수영

푸른이 눕는다

비린 모이 오는 동풍어! 나뭇 가지

푸른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울다가
다시 누웠다



푸른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다

날이 흐리고 푸른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일어나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푸른이 눕는다

오기이:이진유

오 리 밤 에 불났대

유강희 시



저수지 얼음판 위로
기우뚱 뚝어내리듯 물위로 드문



영덩방아 찧는 오리
죽동이군 몸을 바느 오리
아가름으로 깎개질하는 오리



지이이익 미끄럼 타는
오리들 날바닥에 불났대

불났대 불났대, 불났대
호떡집이 아니고 저수지 한복판에



오기 이철/승수



주방에가서
꿀을가져온다
아! 맛이다! *
만화책도가져와야지

히히히 하 하하
따뜻한 바닥위에
재밋는 만화책을보며
글을 쓴다.



지진

세계의 지붕 허물라야 친구들아,
산이 꿈거리고
길이 쭈뼛쭈뼛 갈라질 때 많이 놀랐지?
와르르 짐이 무너져
학교가 뒹보일 때 얼마나 무서웠니?

꿈틀꿈틀 땅속에서
불쭙불쭙 고쳐드는 지진이란 녀석
처럼 이처럼 보이기라도 하면
잡아서 툭툭 말 지각뽕으로 날려 버릴 텐데

얼굴도 빼어나



유진 이:원호

반딧불이

정승호 지음

가 평 이모네집에 가서
오빠와 아이스크림을 사러방길을 가다가
이장네 가게에 나와 갈 무렵
갑자기 내 손끝에 닿아
와~ 반딧불이를 밝히는 것이 있었다
반딧불이였다
나는 가만가만 걸음걸이를 늦추었다
반딧불이는 좀처럼 날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반딧불이가 된 내가 아름다웠다
이것이 그토록 내가 아꼈던 작은 생명이었다

귀이개

오순택

귀이개로
귀지를 파다 보면,

친구와 소꿉친구들은
귀속말도 물어 나오고,

선생님이 한 말씀도
부스라기가 되어 버린다.

그래
작은 귀
내 비밀을 다 꺼내놓구나.



별



즐거운 날 밤에는
한 개도 없더니
한 개도 없더니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다...

윤기아: 어서원

공재동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울고 싶은 밤에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아이스크림

글그림 이강준

더운여름날
더워식힌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원한맛
상큼한맛
달달한맛
더워식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소망의 병

정여민 시

만약 투명한 병에 담고 싶은 게
있다면 따스롭고 눈부신
햇살이겠지 마음이 추운 사람들에게
한줄기 햇살 마쳐 아낌없이 선물 것이다
그리고 환한 달빛도 모아 두겠지
어둠이 무서운 아이의 창문을
달빛으로 두드려
어둠을 손으로 열게 할 것이다

만약 투명한 병에 담고 싶은 게 있다면
따뜻한 바람이겠지
밤하늘에 떨어져 있는 엄마와 별이
꼭 안고 잘수있게
바람으로 밀어 줄 것이다.



옮긴이 : 정하은

봄길

송아름

룰루랄라

학원 마치고 집 가는 길

• 툭!

미세하게 떨어진 이것은?

• 토토토!

으앗?! 또?!

• 툭툭툭... 후두두둑!

안돼~!

올 커니!

가방에 우산이 있었지?

앗! 학원에 두고 왔다!



날개 달린 눈사람

유강희:시
이교은:그림

겨우내
우리집 대문 앞
빗자루 들고
서있던 눈사람
누굴 따라갔나

겨우내 언 손목
곰실곰실 간질이던
햇빛이랑 맨날
도리도리 잤잖아 놀더니
편지 한장 남기지 않고
어디로 날아갔나

눈,코,입,
까만 숏검정과
내 동생 목도리와
흰 빗자루만 남겨두고
발자국도 없이 몰래
어디로 사라졌나

누구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갔나
내년 겨울이면 다시
파란 대문 우리집
찾아올 거야

윤진 이:주세이

무지개 다리

박경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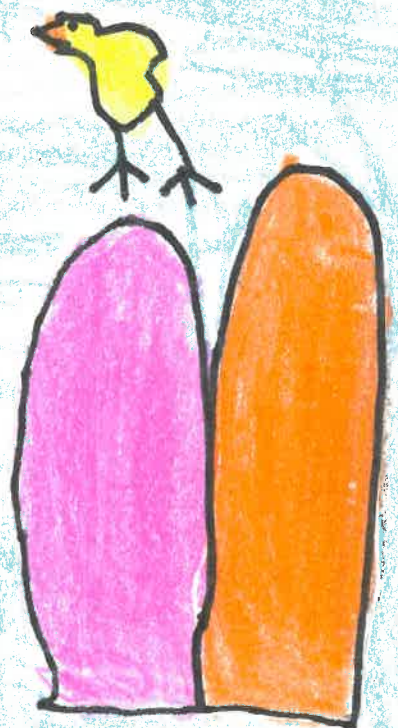
지나가던 나비가
놀고 간 다리.

아름다운 일곱 색이
공기도 하다
어느 날 건너고
노란 다리까지

아름다운 세트로
건너고 싶은 마음
어느 어느 건너건
다리 아니야.

선미와 공제 공제
자난 여단에

지나가던 나비가
심각 피워서
햇볕에 새 알 짝
마리는 거야.



동그마 송강
다리



소낙비

김용택

소낙비가

쏟아진다.

풀밭에

쏟아진다

아얏!
아얏!
아얏!

고마리꽃들이

아파다고소리치며

울긋불긋

피어난다

오기 이 : 이하린



보이지 않는 힘



X 100

유강희 시

바꾸기가

밤코 그림

바꼭바꼭

초록을 펴프질한다

나는 생각의

연못에

어느새 숲은

초록호수

또로롱 빠진

작은 벌레공룡



개구리가

개굴개굴

어느새 밤하늘은

푸른 연못



유강희 시

내입이도독

김희영

삼촌이사 준
내에매랄이드색
자전거

내자물쇠번호는
외우기쉬운

0924

친구들한테말한

0924

자전거를때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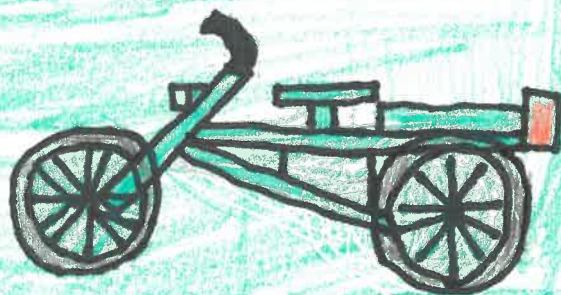
0924

어느날갑자기

사라진내

에매랄이드색

자전거



생각중이다

배현정 그림 오은 영지름

곧장

떨어지지 않고

금금이

생각중이다.

대대대대
롱롱롱롱

빨랫줄에

철봉대에

매달린 빗방울들

무엇일까?

무엇 할까?

움 간 이: 바혜울

우리도 그려

오은영

갑자기
계단 밑으로

콩~콩~콩



갑자기

찾 길을 가로질러

콩~콩~콩



갑자기

담 너머로

후악~

몸 큰질큰질해

시키는 대로만

못 하는 공



호기심으로

탱탱탱 채워져

동그란 공.



출판사: 김재중

악마의 열매

최석훈



집에가고 있는데
한 가게에 이렇게 써져있었다.
악마의 열매입니다
모두 무료라고 써져있었다.

먹으면 초능력이 생긴다해서
열매 하나를 사고 집에 갔다
열매는 이상했다
한입을 먹었는데
나의 몸이 악마로 변했다
나는 다시 그 가게에 갔다.
천사의 열매를 사고 집에오고
그 열매를 먹었는데
다시 사람이 되었다.

고민고민

우수혜

등교하던 중,
갈림길이 나왔다.
오른쪽은 학교, 왼쪽은 오락실이다.
한번만, 딱 한번만.
한번은 관찰했지?
고민고민 고민고민.

쉬는시간에,
할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친구가 실뜨기를 하자고 했다.
이번만, 딱 이번만.
이 정도는 관찰했지?
고민고민 고민고민.

하교하던 중,
학원을 가야 했다.
그런데 분식집이 나왔다.
요번만, 딱 요번만.
요 정도는 관찰했지?
고민고민 고민고민.



오른쪽 지름/배출정그리

그 령코롬 수운 숙제 부를 터 게 어 제 서 아
애 기 때 나 늘 들 때 나 학 미 꽃
미 운 사 람 학 령 때 는 매 방 동
우 리 언 니 입 령 북 자? 해 네 되 아
어 뻔 가 시 언 고 실 은 혹 아 비 꽃
다 이 쿠 나 지 름 남 새 노 구 오름

와! 황애는 꽃 박사네
들도 산도 학교랑게
지부없는 학교랑게.

한글로 쓴 글씨

출판사: 알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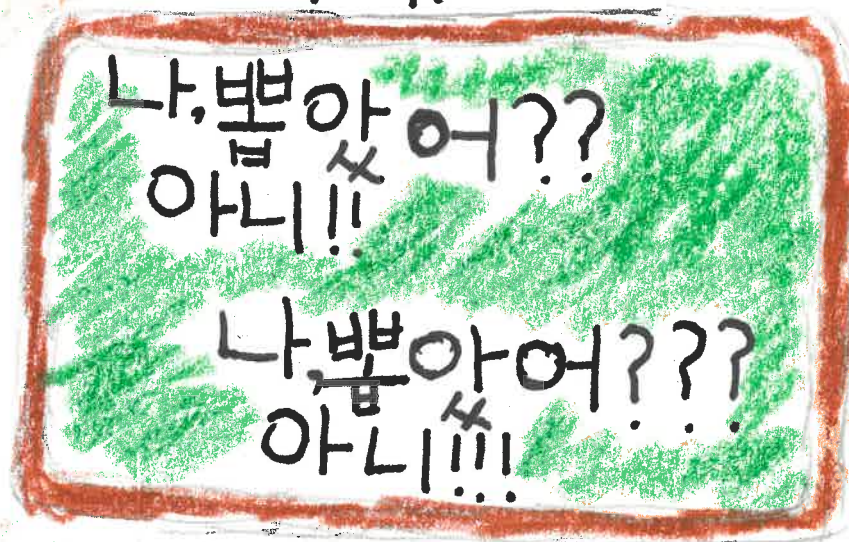
☐ 나, 반장 투표 뽑았어?

유현우

나, 뽑았어?
아니.



나, 뽑았어??
아니.



나, 뽑았어????
뽑아줄까?

아니.

그럼 조용히 해!

강아지

원민서 ♡

작고, 귀여운 아기 송충치

강아지

강아지를 만지면 아기

솜사탕 처럼

부드러워

멍멍!

소리를 내는 귀여운

강아지

산책을 즐기는

"귀요미"



? 누가 내 케익을 먹었을까?

김예빈



나는 내 케이크를 먹은 범인을 찾는다
요리 조리 살펴봐도

나의 케이크 부스러기는 보이지도 않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물어봐도

그럼! 범인은 내 동생!

그렇다!!

내 케이크를 먹은 사람
현철이!!

하지만 입가에 초코가 묻혀져 있는게
너무 귀여워서 한입 가득 볼살을 물어버렸다...

초코

짜증

할머니가 씻으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엄마가 씻으라고 해도
짜증을 내고

엄마가 양치하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이모가 양치하라고 해도
짜증을 내고

어머가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어떻게 짜증을 낸다.